

당뇨병과 결핵



윤영길

(대구·윤영길내과)

당뇨병과 결핵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어서 두가지 병이 같이 걸리기도 하고 또 당뇨병환자의 경우는 일반사람보다 쉽게 걸린다. 오늘날 당뇨병은 날로 그 환자 수가 많아져서 보사부 통계로는 130만명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이 방면의 전문가들은 알고있다.

결핵은 우수한 항결핵제(치료약)가 나와서 전문가가 시키는대로만 하면 어렵지않게 낫는다. 말하자면 완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당뇨병은 아직도 완치시킬 수 없는 병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

만 올바른 식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먹는약 또는 인슐린주사만 올바르게 쓰면 자기의 수명을 고통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당뇨환자 결핵앓을 소지 높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두가지 병이 다같이 만성적 경과를 밟는 병이고 병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랜기간의 투병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자신이 치료나 요양에 싫증 내기가 쉬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종으로 변하기 쉽다. 결핵환자가



당뇨병에 걸리는 율은 다른 병에서와 비슷하지만 당뇨병환자가 결핵에 걸리는 율은 뚜렷하게 높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결핵왕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어서 범국가적으로 이 방면의 예방과 치료를 완벽하게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병률을 낮추어왔다. 참고로 말하면 5세이상 인구에서 흉부 X선상, 병이 진행하고 있는 환자수가 1965년에 5.1%였던 것이 1990년에 1.8%로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990년 현재 72만8천명이라는 환자가 있다는 말이다.

이 가운데 입에서 균이 나오고 있는 환자수는 9만5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결핵협회의 보고서이다.

당뇨때문에 치료상 난점 많아

눈을 돌려 우리 주위를 보라. 지하도, 백화점, 유흥업소, 극장, 전자오락실 등 공기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이곳에 입에서 균이 나오는 환자가 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건강인도 결핵에 걸리기 쉬운데 당뇨병환자라면 얼마나 쉽게 걸리겠는

가. 걸려도 처음에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병이고 보면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당뇨병환자가 결핵에 잘 걸리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측되고 있다. 즉 혈당이 높은것, 백혈구가 균을 잡아먹는 작용이 낮아져서, 글

밀폐된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무엇보다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본인 스스로가 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리세롤이 증가하기 때문에, 육아조식의 형성이 부진하기 때문에,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영양상태가 나빠서, 유전인자 때문에 등등이 관련되고 있다.

당뇨병환자가 결핵에 걸리면 일반사람과 다른 경과를 취한다. 비록 20여년전 통계이긴 하지만 각혈(피를 토하는 것)로서 죽는 경우가 일반사람의 2배다. 일단 결핵에 걸리면 나빠지는 속도가 일반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입에서 균이 나오



는 경우도 훨씬 많다. 또한 공동이라고 폐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보통사람보다 훨씬 많아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90%라는 보고도 있다.

또한 결핵이 완치된다는 것은 섬유화와 석회침착으로 결핵균을 밀폐시켜 버리는! 생체현상이 일반사람에 비해 너무나 늦은 속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당뇨발병 5년에서 10년사이 가장 높아

대체로 당뇨병환자가 결핵에 걸리는 시기는 통계적으로 보면 당뇨병이라고 진단된 후 5년에서 10년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때가 환자들이 병에 대해 방심하기 쉬운때인 것이다. 당뇨병의 병세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쉽게 걸릴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여원 환자에서 결핵을 자주 본다.

또한 당뇨병은 식사요법 자체가 필요최소량을 먹어야 하는데 반해 결핵은 소모성질병이기 때문에 필요충분한 양을 먹어야하는 상반된 식사요법이 문제가 된다.

운동만 해도 상반된다. 당뇨병은 적절한 운동을 권장하는데 반해 결

핵은 안정을 해야할 때가 많다(중증일 경우).

그리고 약도 문제가 된다. 결핵약 가운데는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경장애를 악화시키는 약이 있기에 이에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흔히 쓰고있는 「파스」라는 약은 요검사에 당이 나오지 않는데도 마치 요에 당이 나오는 것 같은 결과를 보일 때도 있다.

조기발견토록 스스로 관심가져야

마지막으로 당뇨결핵환자에게 특별히 당부할 것은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혈당은 각혈이 일어나기 쉬운 위험을 안고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밀폐된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무엇보다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본인 스스로가 병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시키는대로만 한다면 여태껏 장황하고 겁나게 쓰여진 것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싶다.

부디 낙심하지 말고 전문의와 긴밀한 협조만이 병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